『슌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와 『슌쇼쿠 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의 구성

-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

최 태 화*

차례

서론
본론
1. 작품간의 시간적 연계성
2. 제목과 시간적 배경과의 관계
3. 고요미(暦)와의 관련성
결론

서론

『슌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이하 『우메고요미』로 표기함)와 『슌쇼쿠 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이하 『다쓰미노소노』로 표기함)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작품을 시간적 배경에 따라 분석해 보고 두 작품이 하나의 소설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 두 작품의 구조 또한 지금까지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취약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마루야마 시게루(丸山茂)가 「슌스이닌조본의 연구(春水人情本の研究)[1)]」에서 시간적 배경이 거의 같은 계절에 몰려 있고, 『우메고요미』의 13척 만이 계절이 가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 또한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剛)가 상당한 분량의 장편소설이나 소설의 시간의 흐름은 1년 정도로 짧다[3)]라고 언급하고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가 고요미(暦)상에서도 4계절을 흘러 다시 봄을 맞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을 수 있도록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4]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이상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논문은 아직 논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시간에 관련된 장들을 축으로 하여, 각 척들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논증해 가기로 한다.

본론

1. 작품간의 시간적 연계성

먼저『우메고요미』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날[5]에 일어난 일인지를 밝히고 있는 척은 상편 1권 제 3척에서 아토기(跡着)[6]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어 보아 정월 3일임을, 상편 3권 3권 제 6척의 14일, 3편 8권 제 15척에서 춘정월 10일경, 4편 10권 제 20척에서 뱀의 날(巳の日)[7] 등으로 3, 15, 20척이다. 그리고『다쓰미노소노』에서는 2권 제 4회에서 호랑이의 날(寅の日)의 전날 즉 소의 날(丑の日)임을, 4편 12권 12조에서 몇 해가 지난 10월 12일로 날짜를 밝히고 있다. 나머지 척에서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앞의 척과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 날짜를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척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 척의 내용은 시간적 흐름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일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각 척의 시간적 배경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2척은 내용상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며, 내용 중에 요네하치가 묘겐(妙見)보살에 참배를 하는[8] 15일이 되기를 기다려 단지로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는 부분이 있다.[9]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 교주(校注)「春色梅兒譽美」『日本古典文學大系』64권(岩波書店, 1983)의 두주(頭註)에 따르면, 동도유람연중행사(東都遊覽年中行事)(1851)의 1월 15일 항목에 매월 묘겐보살 참배하는 것은 1일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몇 월 15일인지, 혹은 몇 월 1일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 다음 척의 시간적 배경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3척의 내용에 오늘은 아토기(跡着)를 처음 입는 날이라는 구절[10]로 보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월 3일이 3척의 시간적 배경이다. 따라서 1, 2척의 시간적 배경은 계절적 배경이 살얼음이 언 겨울[11]이기 때문에 3척의 전년도의 11월 혹은 12월 1일, 15일 또는 같은 해 1월 1일로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내용상의 흐름으로 보아 12월 15일, 혹은 1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견이나 전체적인 맥락과, 책의 출판시기를 미루어 보아, 1월 1일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4척의 시간적 배경은 오초가 소시사마(祖師さま)에게 참배를 가고 있는 중의 일[12]로서 10월 13일[13]경이 된다.

다음으로 4척과 5척 사이에 한 장 분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척의 액자소설 적으로 삽입된 에피소드와 같이, 다음 척과의 사이를 띄어주는 단락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5척이 요네하치가 후카가와로 옮긴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앞의 1~4척까지의 내용과 달라진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4척까지를 『우메고요미』 전체 내용의 프롤로그로 볼 수 있다. 5척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우메고요미』라는 제목과 어울리는 1월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또한 이것은 책이 출판된 해(1832년)의 1월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6척은 내용 속에 14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 6~9척의 시간적 배경은 14일이고, 10~13척은 15일에 일어난 이야기가 된다. 이 6~13척까지가 초편과 후편의 중심내용이 된다. 다만 5척과 14척은 명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5척과 14척은 둘 다 요네하치와 도베간의 에피소드이라는 점. 5척 앞과 14척 중간에 둘 다 흐름과 동떨어진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다는 점, 두 척을 기준으로 시간적 배경이 크게 바뀐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우메고요미』의 소설구조에서 두 척의 역할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5척은 1월 10일경의 이야기이다. 앞선 6~13척의 내용이 14,15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일어난 일로 본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술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뒤따라 나오는 이후의 척의 시간적 배경과 뒤섞여 버리게 되어 해석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5척을 13척까지의 시간적 배경이 된 1832년의 다음해인 1833년의 1월 10일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이다.

또한 15척이 들어있는 『우메고요미』 3편은 1833년에 간행되고 있어, 5척부터를 1832년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15척을 1833년의 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내용상으로도 단지로가 무코지마(向島)의 나카노고(中の郷)[14]에서 후카가와의 나카우라초(中裏町)로 이사를 하는 등의 시간의 이동이 많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

년이 흘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6~17척 중간까지는 같은 날에 일어나는 일이고 17척 중간부터 19~20척이 같은 날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이다. 17척 중간부터 18척을 제외한 19~20척은 뱀의 날[15]로서 1월 21일이 된다. 그런데 1월 21일은 도베가 16~17척 중간까지에서 오요시의 집에 머물렀던 날로부터 6~8일후의 날[16]이기 때문에 16~17척 중간까지는 13일경에 일어난 일이 된다.

18척은 후술할 내용이나, 『다쓰미노소노』의 시간적 배경과의 관계 때문에 15일에 일어난 일이 된다.

21척부터 24척까지의 시간적 배경은 20척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뿐, 시간을 명시하거나,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갈등이 해소된 이후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제 우리는 『다쓰미노소노』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쓰미노소노』에서는 2권 제 4회에서 소의 날(丑の日)인 17일[17]과, 4편 10권 제 7조 중간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우메고요미』 20척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뱀의 날(巳の日)인 21일이다. 이 두 곳을 기준으로 시간적 배경을 확인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 4회는 소의 날(丑の日)인 17일[18]의 오후 2시경의 일이고, 그 전날 초저녁의 일이 2회 중간부터 3회의 내용이므로 16일이 되고 1~2회 중간까지는 내용상 15일에서 16일 사이의 늦은 밤의 이야기가 된다.

『우메고요미』 18척은 내용이 『다쓰미노소노』 1회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15일에 일어난 일이 된다.

제 5회는 4회와 같은 날인 17일과 18일 사이의 늦은 밤에 일어난 일[19]이다.

제 6회는 18일의 아침, 제 7회 상,하는 18일의 낮, 제 8회는 18일의 오후 6시경의 일[20]이 된다.

제 9회는 8회와 내용이 이어지고, 10회 상,하와 1,2조가 오후 4시경[21]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8일 밤에서 19일사이의 늦은 밤의 일이 된다.

10회 상,하와 1,2조의 내용 역시 앞 회와 이어지기 때문에 19일 오후 4시경의 일로 알 수 있다.

3~5조는 내용상 앞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날인 19일로 알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상 오후 4시경 이후, 즉 저녁때의 일로 알 수 있다.

6~7조 중간까지는 7조 끝까지가 일어나는 21일의 전날[22]이기 때문에 20일이 된다.

이후의 『다쓰미노소노』 4편 8조부터 11조까지는 『우메고요미』의 뒷이야기로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는 유추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마지막 12조에서는 10월 12일의 참배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오초의 아이가 3살이라는 언급으로 미루어 여러 해가 지났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우메고요미』와 『다쓰미노소노』의 시간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메고요미』의 4척까지의 프롤로그 이후에, 6~9척은 책 출간연도인 1832년 1월 14일에 일어난 에피소드이며 10~13척은 같은 해 1월 15일에 일어난 일이다. 『우메고요미』 3편이 출간된 이듬해, 책의 내용도 한 해를 지나서 15척의 내용은 1833년 1월 10일경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며, 16~17척은 1월 13일에, 18척은 1월 15일에 일어난 일이다. 『다쓰미노소노』의 1~3회는 1월 16일에, 4~5회는 17일에, 6~8회는 18일에 일어난 일이다. 9회부터 5조까지는 19일에 일어난 일이고, 6~7조는 20일에 일어난 일이다. 『우메고요미』 17~20척까지와 『다쓰미노소노』 7조는 21일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부분은 주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이 이후의 『우메고요미』 21척부터 24척의 시간적 배경은 확실하지 않고, 내용상 21~24척 이후의 이야기인 『다쓰미노소노』 8~11조 또한 시간적 배경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마지막인 제 12조에 10월 12일에 벌어지는 참배일의 에피소드라는 점, 오초의 아들의 나이가 3살이라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여러 해가 지난 가을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2. 제목과 시간적 배경과의 관계

『슌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의 의미를 확인해본다면 슌쇼쿠(春色)는 색정(色情)을 그린 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메고요미는 하나고요미(花曆)[23]의 일종으로 이른 봄에 피는 매화가 봄을 알린다고 하여 매화가 피는 것을 보아 달력 대신으로 삼는 것이다. 작자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고난을 이기고 행복을 찾는 다고 하는 책 내용의 상징적 의미로 우메고요미를 제목으로 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24]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의 『우메고요미』의 시간적 배경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고요미(曆)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새삼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 달력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세세한 날짜의 추이에 따라 쓴 글이라는 것을 시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다메나가 슌스이가 제목을 『슌쇼쿠 우메고요미(春色梅兒譽美)』로 붙인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메고요미』와 『다쓰미노소노』 내용 중에 10권의 책 광고[25]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에서 『우키요닌조만넨 고요미(浮世人情萬歲曆)』, 『다마테하코우라시마 닛키(玉手箱裏島日記)』, 『보쿠스이 닛키(墨水日記)[26]』, 『가이추 고요미(懷中曆)』는 제목에 달력과 일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슌쇼쿠 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 『다쓰미슈이 에이다이단고(辰巳拾遺榮代談語)』는 『우메고요미』의 속편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우메고요미』로 볼 수 있다.

여러 책 제목에 이러한 시간과의 관련이 깊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메나가 슌스이가 항상 소설 속의 시간을 중시하고 있었고 고요미(曆)즉 달력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덧붙여 말한다면 매화가 필 무렵이 이른 봄은 닌조본(人情本)이 출시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기를 소설 속의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좀 더 현실감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간 배경 설정이기도 하다.

『슌쇼쿠 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의 슌쇼쿠(春色)는 앞서 『우메고요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정을 드러낸 글이라는 것을 뜻한다. '다쓰미'는 후카가와를 뜻하는데, 에도성(江戶城)으로부터 남동쪽 방향 즉 다쓰미(辰巳)의 방향에 후카가와가 위치해서 이러한 별칭으로도 널리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다쓰미노소노』는 '후카가와의 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목은 샤레본(洒落本)중에서도 『다쓰미노소노(辰巳園)』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 그 제목을 빌려왔다고 차용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메고요미』의 속편의 제목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데, 『다쓰미노소노』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해 보았을 때 『우메고요미』와 『다쓰미노소노』의 절정 부분이 용의 날(辰の日)과 뱀의 날(巳の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쓰미노소노』의 '다쓰미(辰巳)'는 공간방향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시간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제목의 의미는 '색정이 펼쳐지는(春色), 용과(辰) 뱀(巳)의 날, 의(の), 특정한 곳(園)[27]'으로도 통할 수 있게 되어, 『우메고요미』의 속편 제목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고요미(曆)와의 관련성

3.1 12직(直)과의 관련성

여기서 잠시 다메나가 슌스이의 『우메고요미』의 서(序)를 옮겨보기로 한다.

남쪽으로 뻗은 매화나무 가지에 눈이 쌓일 무렵부터 한 송이씩 피는 매화꽃. 이 꽃을 세어보며 길(吉)한 방향으로 삼경보주(三鏡宝珠)[28]의 은혜가 있기를 빈다. 정월 초의 서적 판매 개시는 다원옥녀(多願玉女)[29]와 시기가 맞아 좋구나. 색성옥녀(色星玉女)[30]와 관련 있는 매상(賣上) 쪽을 보니, 책을 싼 종이 주머니와 책 표지의 색채 인쇄도 좋구나. 천성옥녀(天星玉女)[31]의 덕에 의해 재수가 좋은 방향에서 고객이 오고, 설빔을 처음 입는다.

대저 팔장신(八將神)[32]의 방위에 어긋나지 않는구나. 책력에서 말하는 건(建)[33]이란 책 제본에 좋고, 평(平)은 표지가 매끄럽고, 제(除)는 그림만 눈요기하는 것을 막고, 파(破)는 출판 허가가 나는 것이다. 팔 가격을 정(定)한 당일에, 집(執)은 재수가 좋아져서(成) 수입을 거두고(納), 책을 펼쳐보는(開) 독자에게 작자가 바라는 평판이 출판사의 창고에 가득 차기를 바라노니 만(滿)이로다. 천은(天恩)과 월덕(月德)[34]의 대길일(大吉日)이로구나.

사계절에 모두 있는 토왕(土旺)[35] 기간 동안은 물론 춘하추동 어느 때고 출판이 멈출 때가 없고, 매일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추가 인쇄한다는 것이 다만 욕심을 부리는 내 멋대로의 생각일까. 어디를 보아서 그런 가격으로 나갈까 할 정도로 팔리는 판매 부수는 한이 없구나. 독자 제현(諸賢)이여, 놀러나가지 않은 날에는 꼭 이 책을 가지고 즐기시며 매화향기가 퍼지듯 남들에게 선전하시고, 올해도 꼭 애호해 주시기를 사방의 신들께 빈다. 사방팔방이 막히고 금신(金神)[36]의 중앙에 위치하여 당하였던 이 삼사 년간의 재난도 서서히 풀려가듯 살얼음이 녹아 봄날의 물(春水)이 세상에 가득 차는구나.

제철을 만나 웃는 얼굴로 피어나는 매화꽃, 분에이도(文永堂)의 후원과 야나기가와 시게노부(柳川重信)의 애교 있는 미인화로 만들었으니 제발 대성공하기를. 햇볕도 잘 들어 활짝 핀 매화 가지를 월요성(月曜星)[37]의 영전에 바치고 일양내복(一陽來福)[38]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붓을 들었다.

때는 덴포(天保) 임진년(壬辰年 : 1833년). 춘정월에 발행하기 위해 동짓날 밤에 먹을 벼루에 갈고 붓을 적시도다.

에도(江戶) 시의 은자(市隱) 교쿤테이(狂訓亭)

다메나가 슌스이(爲永春水) 적다39).

이 서문에서 슌스이는 달력에서 쓰이는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며,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 이 중에는 방위와 관련된 용어와, 시간과 관련된 용어가 섞여 있는데, 그 중 12직(直)은 시간과 관련된 용어이다. 『고요미 사전(こよみ事典)[40]』의 12직에 대한 해설을 참조해서 12직에 대해 요약한다면, 12직(直)이란 일본의 구력(旧暦)에서 하루하루의 길흉을 나타내는 역주(暦注)중의 하나로 건(建), 제(除), 만(満), 평(平), 정(定), 집(執), 파(破), 위(危), 성(成), 수(收), 개(開), 폐(閉)의 12가지[41]로 나누어진다. 12객(客), 12건(建)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달력의 중간부분에 게재되는 점에서 주단(中段)으로도 불린다. 북두칠성의 움직임에 따라 12자리의 순서가 결정되고, 입춘(立春)후의 최초의 인(寅)의 날을 건(建)으로 그 기준을 삼아, 앞에 제시한 순서대로 12직의 순서[42]가 돌아간다. 각각의 직(直)은 그날의 길한 일과 흉한 일을 알려준다.

서문에서 이토록 길흉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던 슌스이가, 내용의 시간적 배경에 배려를 하고 있었다면, 이 12직에 관하여서도 어떠한 안배를 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12직을 각 척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것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우메고요미』의 18척의 시간적 배경은 1월 15일이며, 12직 중에 수(收)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날은 매입과 옷을 만드는 것은 길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흉한 날[43]인데, 18척에 요네하치가 단지로에게 사준 옷이 도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아다키치가 단지로의 집을 나서다가 요네하치와 만나게 되어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다쓰미노소노』의 1조의 시간적 배경은 1월 19일이며, 12직 중에 제(除)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날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길한 날[44]인데, 소설의 내용 중에 아다키치가 단지로에게 만들어준 옷을 요네하치가 뒤따라와 그 옷을 버린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우메고요미』 17~20척, 『다쓰미노소노』의 7조의 시간적 배경은 1월 21일이다. 이 이틀간이 전체 내용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1월 20일의 12직은 만(満)이고 1월 21일의 12직은 평(平)이다. 만(満)과 평(平)은 둘 다 일체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만복이 성취되고 만사가 대길한 날[45]이다. 특히 21일의 평(平)은 천제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날로써, 20척의 내용은 단지로의 신분이 밝혀지고, 악인의 죄가 밝혀지고,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위의 예를 준거로 삼아 작자가 12직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에고요미(繪曆)와의 관련성

시간적 배경의 긴밀함, 제목의 고요미(曆)와의 관련성, 당시 고요미에 실려 있던 12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보면, 작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소설을 구성해 나갔는지는 확연해 진다. 이러한 슌스이의 의도는, 『다쓰미노소노』 후편 4권 7회의 삽화에 직접 에고요미(繪曆)인 대소력(大小曆)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작품 속에 그려진 에고요미(繪曆)는 에고요미중에서도 대소력(大小曆)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약식달력으로써 큰달과 작은달만을 표시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에고요미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러한 에고요미의 성격과 특징을 오카타 요시로(岡田芳朗)[46]의 글을 빌려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에도시대에 이미 매년 수백만부에 달하는 고요미가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 달력이면서, 달력으로서의 실용성보다도, 미술품이나 취미적 성격이 짙은 것은 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도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다. 그것이 에고요미이다. 에고요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소력(大小歷)이다. 대소력은 현대적인 호칭이고, 원래는 그저 대소(大小)로 불렸다. 대소는 달의 대소라는 의미로 그 달의 대소를 알려주기 위한 달력이다. 음력에서는 달의 삭망(朔望)이 매달 틀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해의 대소를 와카(和歌)나 하이쿠(俳句)등의 단문에 섞어서 외우기 쉽게 하는 형태는 일찍부터 발달 했다. 대소력은 원래 증정용으로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적지 않다. 대소력의 그림은 유명한 화가에게 의뢰하고, 글은 저명한 게사쿠샤(戲作者)
>
> 이러한 대소력은 상대가 대소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그 뜻을 숨기는 가에 재미가 있었다. 정답은 서로 알고 있고, 정답은 반드시 대소력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대소력을 푸는 재미이다.

이러한 에고요미가 마스키치의 집에서 아다키치와 마스키치가 나누는 대화를 그린 그림인 『다쓰미노소노』 후편 4권 7회의 삽화에 그저 배경인 듯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에고요미의 유희적 성격을 보아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법은 1836년(天保7)에 출간된 『풍월화정 하루쓰게도리(風月花情 春告鳥)』 초편 3권 제 5장의 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론의 논증에 따라 『우메고요미』와 『다쓰미노소노』는 고요미(曆)를 이름만을 따온 것이 아닌 작품 전체의 구조의 축으로 하여 이에 따른 견실한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닌조본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구조의 취약성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닌조본연구는 소설구조에 대해서 구조의 튼튼함을 의식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메고요미』와 『다쓰미노소노』는 닌조본의 대표적 작품이기는 하나 많은 닌조본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도 하다. 시급한 연구과제로서 우메고요미시리즈인 『슌쇼쿠메구미노하나(春色惠之花)』, 『슌쇼쿠에이다이단고(春色永代煖語)』, 『슌쇼쿠우메비부네(春色梅美婦禰)』에 대해서도 이상과 동일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리즈의 총합으로서의 『우메고요미』의 모습을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논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그 이후의 연구과제로서는 여타 작자의 닌조본과 슌스이 닌조본의 비교대조연구, 『우메고요미』 시리즈와 다른 슌스이 닌조본의 비교대조연구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닌조본의 세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점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본 고찰을 마친다.

【注】

1) 丸山茂, 「春水人情本の硏究」(櫻楓社, 1978) 제 2장 「春水人情本」의 確立 - その意圖と構想の展開に卽して - p.129 참조
2) 그 논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山口剛, 「人情本について」, 「爲永春水の硏究」, 『山口剛著作集』 제4권(中央公論社, 1972)참조
4) 中村幸彦 校注 「春色梅兒譽美」 『日本古典文學大系』 64권(岩波書店, 1983)
5)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시(日時)는 구력(旧曆), 즉 음력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6) 迹着小袖의 줄임말. 에도 신 요시와라(江戶新吉原)의 유녀 등이 정월 1일이나 2일에 포주가 주는 옷으로 정월 축하방문을 한 후 3일부터 입는 각자가 좋아하는 고소데를 지칭하는 말.
7) 60간지(干支)로 이루어지는 갑자일(甲子日), 을축일(乙丑日) 등에서 12지중 사(巳)에 해당하는 날. 용의 날(辰の日) 등도 마찬가지이다.
8) 나카노고(中の鄕) 동쪽에 위치한 혼조(本所) 야나기시마무라(柳島村) 호쇼지(法性寺)에 있는 보살로, 많은 사람들이 참배했다.

9) 私の聞たことを口留して、置て、今日の朝參りには、なんでも尋ねよふと思つて、十五日を樂しみにして、出て來たんでありまさアな。텍스트 49 쪽
10) 身に染む紋日物日さへ春は殊更やるせなき、今日ぞ跡着の着染初と、賑ふ時も巳の剋- 텍스트 63쪽
11) 間原なる、外は田畑の薄氷、心解あふ - 텍스트 47쪽
12) 其身の親元も金澤なれば兩方へ文を添て祖師さまへ參詣の時を得て途より直に落せしなり。- 텍스트 72쪽
13) 岩波書店、日本古典文學大系64、春色梅兒譽美 72페이지 두주 10 참조
14) 오초가 살고 있는 고우메(小梅)에서 가까운 곳이다.
15) 1832年(天保3年) · 1833年(天保4年) 1月1日 · 2月1日の干支ですが、
1832年旧暦1月1日 己酉日、閏年。
1833年旧暦1月1日 癸酉日
と、ご質問の中に書かれているとおりで間違いありません。
출처 - 國立天文台 天文情報公開センター 廣報普及室
이에 따르면, 1832년과 1833년은 공교롭게도 두 해가 모두 1월 1일이 유(酉)의 날로 시작되고 있다. 계산하면 이 뱀의 날, 즉 사(巳)의 날은 1월 21일이 된다.
16) 斯て藤兵衛は其翌日立歸りて、五七日音信なければ、- 텍스트 176 쪽
17) 1832年(天保3年) · 1833年(天保4年) 1月1日 · 2月1日の干支ですが、
1832年旧暦1月1日 己酉日、閏年。
1833年旧暦1月1日 癸酉日
と、ご質問の中に書かれているとおりで間違いありません。
출처 - 國立天文台 天文情報公開センター 廣報普及室
이에 따라 1월 5일과 29일도 소의 날이나 내용전개 상 17일이 자연스럽다.
18) 喜代八「ほんに明日は寅の日だ - 텍스트 272쪽
19) 春「仇さんおまへマア今夜はたいそう醉った - 텍스트 278쪽
20) 母「なぜといつて、あんまり朝から日のくれるまで、增すさん處でもてへてへお世話さまだアな。- 텍스트 313쪽
21) 何かささやくその時しも、七ツ坊主の拍子木と、ともに座敷の道具かはりて、- 텍스트 332쪽
22) これはさておき翌日は、彼龜本の坐敷には、今日も賑はふ大一座 - 텍스트 398쪽
23) 꽃이 피는 시기를 4계의 순으로 기록하여 각 조(條) 아래에 각각의 꽃의 명소를 기록한 것.
24) 神保五彌「爲永春水の文學觀とその方法」『文學』33-11호 (1965. 11)
25) 총 11권의 책 선전이 들어가 있으나, 그 중 『하코네구사(箱根草)』는 슌스이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6) 다메나가 슌스이가 교주(校主)를 함
27) 소노(園)는 특정의 장소, 무언가가 행해지는 장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28) 삼경보주(三鏡宝珠): 과거에 달력의 처음에 그리는 3개의 거울을 합한 보주형(宝珠形)을 말하는데, 3개의 거울 즉 삼경(三鏡)이란 일월성(日月星)의 삼광(三光)으로 즉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나타낸다. 이것은 소원성취(所願成就)의 길성(吉星)이므로 달력의 처음에 삼경을 그려 모든 사람이 새해에 길성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것이다. 오른쪽에서부터 색성옥녀(色星玉女)・천성옥녀(天星玉女)・다원옥녀(多願玉女)라 한다. 본 서문에서는 책력에 관한 용어를 구

사하여 본 작품의 순조로운 판매를 기원하고 있다.

29) 다원옥녀(多願玉女): 다원옥녀는 여행의 출발, 외출, 출항 등에 길하며, 또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30) 색성옥녀(色星玉女): 색성옥녀는 새 옷을 처음 입거나 재단을 처음 하는 데에 길하며, 또 모든 것을 거두어 넣는 데에도 좋은 방향이다.

31) 천성옥녀(天星玉女): 소원성취에 부합하며 매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이다.

32) 팔장신(八將神): 음양도에서 길흉의 방위를 맡은 여덟 신으로 태세신(太歲神)·대장군(大將軍)·태음신(太陰神)·세형(歲刑)·세파(歲破)·세살(歲殺)·황번(黃幡)·표미(豹尾)를 말한다. 매년 소재하는 방위가 다르고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 길흉이 정해진다.

33) 건(建): 재보(財宝)를 수납하고 출행 등에는 대길일이지만 땅을 파고 배를 타거나 창고를 여는 데는 흉한 날이다.12직(直)중 하나.

34) 천은(天恩)과 월덕(月德): 역(曆)의 하단(下段)의 용어로 모두 대길일(大吉日)을 나타낸다.

35) 토왕(土旺): 원문은 도요(土用). 사계절에 있으며, 3, 6, 9, 12월의 13일에서 18일까지를 말한다.

36) 금신(金神): 역술(曆術)에서 가장 피하고 무서워하는 방향의 신.

37) 월요성(月曜星): "월요, 이 날 공덕을 이루고, 옷을 재단하고, 머리를 감고, 손톱을 자르고, 새 옷을 입는데 좋다"(『曆日諺解』)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 나오는 일양내복(一陽來復)과 의미상 어울리게 된다.

38) 일양내복(一陽來福): 일양내복(一陽來復)이란 11월 동짓날은 음이 다하여 양이 다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복(復)을 복(福)으로 바꾸어 작자 자신의 생활에도 복이 오기를 바라고 본 작품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도 쓴 것이다.

39) 梅ご与美の序

南枝に雪の積頃より、一輪ヅヽの梅の花、かぞへえて願ふ吉方は、三鏡珠の惠を祈る、春のあしたの賣出しに、多願玉女の門出よし。色星玉女の利益には、袋、外題の色摺よし、天星玉女の神德に、惠方の買手來そはじめ、そも八將神の方位にそむかず、建とは仕立の切形よく、平は表紙に凹もなく、畫ばかり除はひやかしにて、破は御免の表紙附、立直を定の當日に、執とはえんぎに成納。卷を開の看官に、作者が願御評判、滿とは則板元の、藏入いはふ天恩月德、四季の土用はいふも更、春夏秋冬止時なく、日日の注文追摺とは、チト欲心の十干十二支。土公をおせばそんな直が、出るとは部數の限なく、諸君遊行の間の日には、かならず此冊子をもて遊びて、梅が香つたふ御風聽、今年もかはらず御取立と、願ふ心の十方ぐれ、八方金神の中央に、座したるこの三四年の災厄も、やや解そむる薄氷、春水四澤にみつるといふ、時をえがほや花の兄、文永堂の引立に、柳川重信畵の愛敬で、何卒あたれ大當。日あたりもよき梅の枝を、月曜星の尊前に供、一陽來福の吉書はじめ。于時天保壬辰年、春正月の發行にとて、冬至の宵に墨水を、硯にうけて筆を染。

江戸前の市隱狂訓亭

爲永春水しるす

- 텍스트 42쪽

40) 川口謙二, 池田孝, 池田政弘 著『こよみ事典』(東京美術、1977년 초판인쇄)

41) 각각의 일본어 음은 たつ, のぞく, みつ, たいら, さだん, とる, やぶる, あやぶ, なる, おさん, ひらく, とず이다.

42) 12직의 순서와 월일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節月	正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子の日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建	閉
丑の日	閉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建
寅の日	建	閉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卯の日	除	建	閉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平	滿
辰の日	滿	除	建	閉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平
巳の日	平	滿	除	建	閉	開	收	成	危	破	執	定
午の日	定	平	滿	除	建	閉	開	收	成	危	破	執
未の日	執	定	平	滿	除	建	閉	開	收	成	危	破
申の日	破	執	定	平	滿	除	建	閉	開	收	成	危
酉の日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建	閉	開	收	成
戌の日	成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建	閉	開	收
亥の日	收	成	危	破	執	定	平	滿	除	建	閉	開

43) 川口謙二, 池田孝, 池田政弘 著『こよみ事典』(東京美術、1977년 초판인쇄)

44) 상동

45) 상동

46) 岡田芳朗,『暦ものがたり』(角川書店、1982년 초판)

『春色梅兒譽美』と『春色辰巳園』の構成

崔 泰 和

本考は『梅暦』の作者である爲永春水が手鎖50日の刑罰の結果、心勞と内損で亡くなったという問題に着目して、春水が自分の作品に相当なプライドを持っていたという立場で春水の代表作である『春色梅暦』と『春色辰己園』を分析してこの作品が春水の死因に合っている作品であるかを明らかにするのが目的である。

いままでの先行研究は『春色梅暦』と『春色辰己園』は脆弱な小説構成で作られた物という視覺が主な流れであった。論者は当時1万部以上の記錄的な販賣高を記した作品の小説構成が脆弱という分析に懷疑的である。

したがって、二つの作品の小説構成に弱みがあ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必要が出てくる。この試みのために本考では『春色梅暦』と『春色辰己園』を一つの作品という前提下で、作品の題目に出ている暦の意味に着目して、時間的背景を分析してみた。

事件の展開過程と時間的背景との關連性を分析した結果、春水が暦を元として1832年と1833年の1月を兩輪として時間の移動にしたがって緻密な時間的背景の構造上で登場人物の配置を行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また、当時の暦の一つの重要な部分であった十二直との關連性も確認できて、單に時間的背景のために暦を使っただけではなく、占いなどの暦の意味も存分に使っていたことを確認した。

しかし、こういう暦を元にした作品構造がたやすく分かれるように作られた物ではないのでその理由にもう一つの問題が出てくるが、その問題は作品の中で繪暦の存在が確認できて解決された。

繪暦の特性の一つは‘誰でも分かっている暦をどんなにうまく隱すにかが大事’という事である。ゆえに、作者春水はこういう繪暦の特性を作品の中で利用して、その時間的背景を事件展開の裏に巧みに隱しておいた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時間的背景を確認した結果、先行研究とは異なって『春色梅暦』と『春色辰己園』は緻密な構成で作られた作品というのが論証できた。